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6

교회의 빛나는 인물들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성인명	요아킴 (Joachim)	성인명	안나 (Anne)
축일	7월 26일	축일	7월 26일
성인구분	성인	성인구분	성녀
신분	성모의 부친	신분	성모의 모친
활동지역		활동지역	?
활동연도	+1세기	활동연도	+1세기
같은이름	요아힘, 조아킴	같은이름	앤시, 니나, 애나, 애니, 앤

[1] 요아킴과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입니다. 성경에는 이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나, 교부들의 문헌에 담겨져 있는 교회 성전(聖傳)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성요한 교부는 요아킴이 다윗가문의 나탄의 후손이라고 전해준다. 요아킴의 아버지 이름은 바르판타이다. 예루살렘에서 성경공부로 생애를 마친 성 예로니모 교부는 요아킴이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안나와 혼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성전에 바치고, 다른 한 부분은 순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바쳤다. 또 나머지 한 부분을 자신들의 생활을 위하여 간직하였다. 이 부부는 결혼하여 20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었다.

요아킴과 안나는 만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자녀를 주시면 꼭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해마다 큰 축제일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곤 하였다. 그리하여 요아킴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축일에 일행으로 함께 간 자신의 가문 동료들과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서서 준비해온 제물을 봉헌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사제가 크게 화를 내면서 요아킴을 아단쳤다. 그 대사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히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다고 모질게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제단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동료들 앞에서 부끄럽고 슬픈 체험을 한 요아킴은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들을 치는 목동들 있는 곳에 가서 있게 되었다.

[2012년 6월 24일 남북통일 기원 미사(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청주주보 3면,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강서동 본당 주임)]

[2] 한동안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주님의 천사가 요아킴에게 나타났다. 그 천사는 놀란 요아킴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었다. 천사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자선을 보셨으며 그가 자녀가 없는 관계로 모욕을 당한 것을 지켜보셨다.”고 말하였다. 또, 자녀가 없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며, 여인의 자궁을 열고 닫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아기를 가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라도 자녀가 없어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던가! 그러던 사라는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된 아들 이사야를 낳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라헬도 이집트의 주인까지 되었던 요셉을 낳은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또한 구약의 가장 힘센 사람이었던 삼손과 가장 거룩했던 사무엘도 한때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어머니들의 자녀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 “네 아내 안나가 너에게 딸을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아기 이름을 ‘마리아’라고 정하여 불러라. 네 딸은 너희가 약속한 대로 아기 때부터 주님께 봉헌될 것이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찰 것이다. 그 아기는 밖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항상 주님의 집 안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에서 장차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구세주께서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의 금으로 된 문 앞으로 가거라. 거기서 네 아내 안나가 너를 마중나올 것이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취를 감추었다.

요아킴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안나를 만나게 되었고, 안나는 주님의 계시대로 마리아를 낳았다.

[2012년 7월 8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청주주보 3면,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강서동 본당 주임)]

[3] 서기 150년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나와 요아킴’에 대한 언급은 마리아가 태어난 집, 즉 요아킴과 안나의 예루살렘 집터 위에 마리아 대성당이 건축되었으며, 그 축일이 11월 21일이었다(오늘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기념일). 오늘날 그 자리에는 회교도 사원인 엘 악사 모스크가 서 있다. 오늘날 교회가 지내는 7월 26일 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 때 이루어졌다. 이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같은 성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아킴과 안나의 이름이 마태오 복음서나 루카복음서의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으로 이어짐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천주성자이신 예수님이 육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문에서 출생하셨음을 깨닫게 도와준다. 창세기 성경말씀대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부수어 버릴 것’(창세 3,15)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이루어졌다.

안나 성녀는 아기와 엄마들의 주보성인으로, 또한 광부와 뱃사공들의 주보성인으로 공경받는다. 안나 축일은 현대의 어머니날이 생기기전까지 수세기동안 교회 안에서의 어머니날로 지냈다. 독일 뉘른(이곳 성당 안에 안나 성녀의 머리가 있음)과 슐레지엔, 프랑스의 프로방스와 브레타뉴 지역과 캐나다 등지의 성녀 안나 순례성당으로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부녀자들이 기도하며 순례를 하곤 한다. 오늘날의 요아킴과 안나 축일은 ‘가정의 축일’, 또한 ‘거룩한 혼인의 축일’이 되었다.

[2012년 7월 22일 연중 제16주일 청주주보 3면,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강서동 본당 주임)]

**연중 제 16주일**

---

**2023년 07월 2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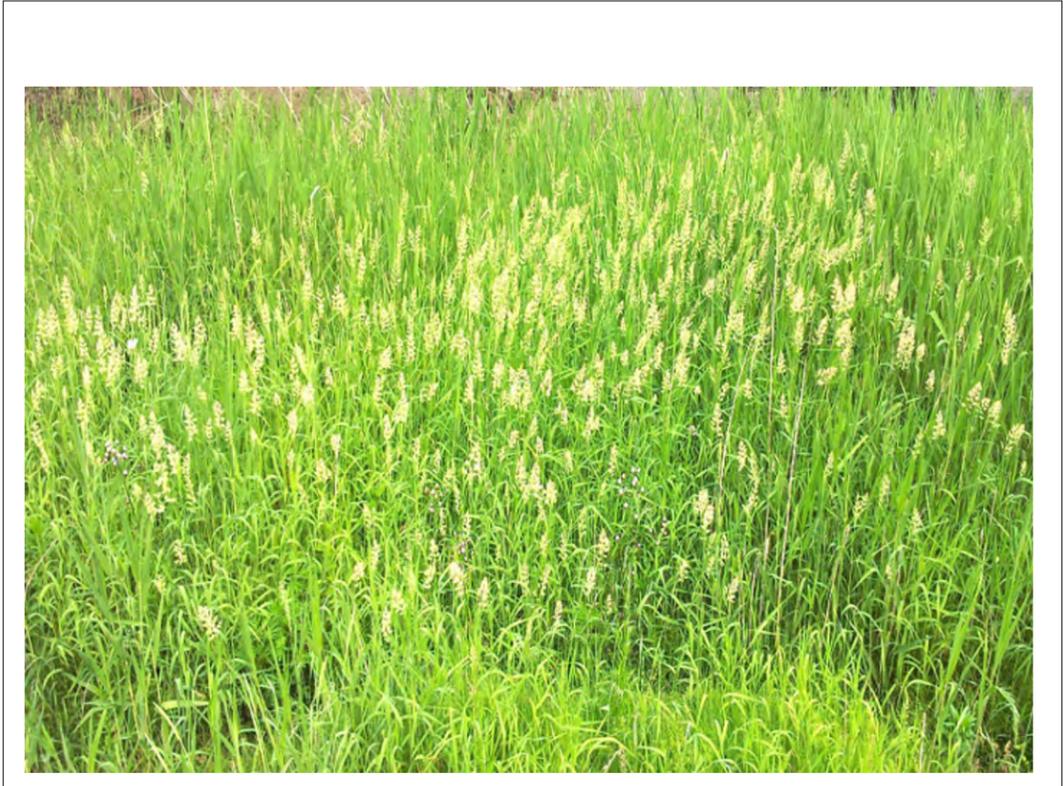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오 13,24-43>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지혜서12,13.16-19  
#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7(◎ 5.7)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6-27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13,24-43  
# 성기번호 입당 21 봉헌 220, 510 성체 160, 154 파견 31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곽창진(스테파노) - 곽 루시아
- 이정만 -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올리아나)
- 김정수(이사벨라)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이막동(아네스) - 가족
- 이 마이클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염 세실리아,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올리아나)
- 성순영(라파엘라) 가정 - 이대우(베드로) 가족, 성가대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한종매(안나) - 가족, 황태진(필립보) 가족, 염 세실리아, 김순옥(올리아)
- 안가연(루시아) - 손흥희(아네스), 유미선(클라라)
- 문마빈(비오) - 이서형(요안나)
- 오용덕(헨리코) - 노스에디슨 구역
- 정수지(아네스) - 김 아가다, 이서형(요안나), 정 테레사, 김순옥(올리아), 주일학교&유스그룹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134명)	\$1,291
감사헌금	\$200
문세라(\$100)      나채국(\$100)	
교무금	\$2,620
박재영(7-10)      서정근(7-8)      박정훈(6-8)	
채희백(7-8)      이재서(7-12)      오현주(7-8)	
이순분(1-6)      하건철(5-7)      이금주(6-7)	
박락준(7)	

미주 청년 천주교 모임 故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피정

- 일시: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7시 - 8월 13일(일) 오후 3시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 대상 및 참가비: 21-35살, \$250 (8월 4일 마감)
- 신청: RYCReborn.org

선교지의 청소년들에게 악기 보내기 및 故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를 위한 추모 음악회

- 일시: 2023년 8월 13일(주일) 오후 5시 -7시
- 장소: 뉴저지 데마레스트 성요셉 성당
- 문의: 문혜은 아쿠실리아 718-344-6565
- 구분주 미카엘 917-348-5977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0월 부터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8/6 럽거스      • 9/10 먼로

3/4 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먼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7월 23일(주일) 오후 1시 30분, 김치하나

테네시 농장 농산물 주문

- 마감: 7월 30일(주일) & 픽업: 8월 13일(주일)
- 유기농 옥쪽마늘 30개: \$38
- 문의: 성모회장 이소희(사라)

주일학교 (K - 8th Grade) 및 유스 (9th- 12th Grade)모집

-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에 시작합니다.
- 접수: 7월 23일- 8월 30일까지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 <https://sites.google.com/view/olmsbbnj/church-organizations/parish-religious-education?authuser=0>
- 접수비: \$70/학생, \$130(2명), \$180(3명) 한지혜(크리스티나) 자모회장님께 전달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8월 6일 11시 30분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김수완 세실리아 청소년 분과장)

학생 독서단 모집

- 5학년- 유스그룹 대상으로 학생 독서단을 모집합니다. 매 월 마지막 주일 미사 중 제 2독서를 읽게 되며 미사 전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미사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8월 27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청소년 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전례분과장 맹순영 베로니카

청년 및 소년 레지오단원 모집

-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개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성모님의 군단에 초대합니다.
- 청년 브레시디움 (18세 이상 남아 청년)
- 소년 브레시디움 (첫 영성체를 한 5학년-12학년 학생)
- 문의: 꾸리아 단장 채미영 테레사 (862-579-9999)

이냐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 일시: 8월 10일(목) 오후 4시 -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Loyola Retreat,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32
- 지도신부: 박병관 사도 요한 (예수회)
- 주제: 동중부 K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 주제: 묵시록의 신앙으로 사는 오늘
- 참가비: \$950/1인(숙식비용 포함)
- 인원: 선착순30명 (7월 25일 마감)
- 문의: 오종선 로사리오 (443-453-3782)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올리아나      방진숙(테레사)
- 정수지(아네스)

제1독서: 지혜서12,13,16-19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6-27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13,24-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상식

왜 믿음은 성사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성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성사 자체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성사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